

제207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

2019. 10. 21.(월) 10:00

5분 자유발언



논산시의회 부의장 박승용

「논산시 읍면동장 직위 공모제 시행 재검토」 제안

- 존경하는 논산 시민 여러분!
논산시의회 부의장 박승용 의원입니다.
-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을
허락하여 주신 존경하는 김진호 의장님을
비롯한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
말씀을 드립니다.
- 또한 사람중심, 살기 좋은 논산시를
만들기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
황명선 시장님, 그리고 관제 공무원 여러분과
정론직필에 앞장서 주시는 언론인
여러분께도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

- 논산시장님께서서는 지난해 9월 11일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발표한 ‘자치분권종합계획’에서 주민 주권 구현 등 6대 전략 33개 추진과제 제시의 일환으로
- 주민주권 구현을 위한 추진방안으로 ‘읍면동장 주민추천제’를 도입하여 마을민주주의 및 자치를 통해 동고동락 마을만들기를 완성코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
- 이를 위하여 논산시장님께서서는 읍면동장 직위공모제 추진계획을 2019년 10월 11일 각 읍면동 및 논산시의회 등에 공문을 발송 한 바 있습니다.

- 내용은 읍면동장 직위공모제에 지원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역주민이 면접 및 평가를 통해 적격자를 추천하여 임명하는 제도로 15개 읍면동 전면 실시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.

- 세종시를 비롯한 충청권 일부 지자체를 알아본바 일부 읍면동만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장·단점을 파악한 후 논산시가 전면 재검토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.

- 본 의원이 “논산시 읍면 동장 직위 공모제 추진”과 관련하여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한바 다음과 같은 의견이 있음을 말씀 드리겠습니다.

- 이 제도를 시행하게 되면 능력보다는 인기영합과 온정주의 정책 및 출신지역 공무원에게 유리하게 됩니다.
- 주민 출세우기 등 전시행정의 표본이며, 비효율적 인사제도로 특정기득권에 대한 정책이며,
- 또한 정치적 개입과 주민갈등을 초래하여 민심혼란이 야기되어, 시민에 의해 추천된 읍,면,동장에 대해 자신의 이익추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.
- 행정, 재정적으로 낭비가 예견되며, 리통장의 경선에서 보았듯이 지역이 나뉘고 주민들의 갈등이 증폭되며,

- 주민담합 가능성이 보일 것이고
읍면동장은 무기력화 될 것입니다.
- 읍, 면, 동장 지원자의 입장에서 보면
지원자의 업무과중 및 부담감과
탈락될 경우 후유증이 많을 것으로
예상되며,
- 심의위원을 구성했을 시
홍보의 미흡등으로 특정 직능 단체
활동가를 중심으로 구성될 수 있어
투명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.
- 또한 주민들의 시각에서 논산시장의
인사권이 임명권자가 단체장인지
주민인지 모호하게 되며,

- 임기가 2년으로 보장되어 임기 내 인사이드가 어렵고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의견이 무시되며,
- 시민추천 읍면동장의 권한 문제로 자치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권한의 범위가 불명확하다고 생각합니다.
- 현행규정상 읍면동장의 자체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과 재원의 확보가 어려우며,
- 읍면동직원에 대한 인사권이 주민의 간섭과 타율적인 관여로 읍면동장의 자율적인 운영이 어려울 것으로 예견됩니다.

- 이상 문제점을 제기하는데
논산시장님께서서는 충분히 제고하셔서
읍면동장 직위공모 추천제에 대하여
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
거듭 제안하는 바입니다.

- 본 의원은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
논산이 살기 좋은 도시가 되기를
희망합니다. 그리하여 앞으로도
논산시 발전을 위해 계속해서
발로 뛰며 매진할 것입니다.

- 정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

2019년 10월 21일

논산시의회 부의장 박승용